



본선 보다 힘든 경선...현직 대항마는

구북구 군수, 문행주·윤영민·임지락 등 경쟁...다른 후보들도 출마 검토

화순군수

화순 군수 선거는 민주당 텃밭 인 지역 특성상 '본선보다 예선'이라는 공식이 유효한 대표 지역이다. 현재 현직인 구북구 군수가 재선 도전에 무게를 싣고 있고, 문행주 더민주혁신회의 화순상임대표,



구북구



문행주



윤영민



임지락

윤영민 지역경제연구소장, 임지락 전남도의회이 가세해 일찌감치 네 갈래 경쟁이 예고된다. 네 사람 모두 기초·광역의회 경험을 갖춘 '풀뿌리 정치' 출신이라는 공통분모를 지녀, 이번 판의 승부처는 정책 경쟁력과 현안 해결 능력으로 압축될 전망이다. 당내에선 구북구 군수의 출마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본인은 "군민이 원하면 응대하겠다"는 수준으로 말을 아끼지만, 군정의 연속성과 대형 프로젝트의 마무리를 이유로 재선임을 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건강설에 대해선 스스로 "이상 없다"고 선을 그었다.

도전자 중 가장 눈에 띄는 이는 문행주 상임대표다. 화순군의회의(5·6대)와 전남도의회(10·11대)를 거친 16년 의정 경력에,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도의회 원내대표, 이재명 대선캠프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 전남본부장 등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당직 경험을 쌓았다.

윤영민 소장은 '정책+현장' 결합형 카드다. 화순 토박이로 초·중·고를 모두 지역에서 나왔고, 전남대 정책대학원 석사와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수료를 거쳤다. 7·8대 화순군의원과 부의장을 지내며 지역경제 의제를 파고들었고, 폐광지역 화생·청년 정

주 화충·광주·화순 연계 산업벨트 강화 같은 민생 어젠다를 전면에 세웠다. 민관·산학 협치 채널을 넓혀 실무와 정책을 동시에 굴릴 수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임지락 도의원은 '행정·의회 실무형' 이미지가 강하다. 화순 군의회(5·6대)를 거쳐 현재 제12대 전남도의회원으로, 안전건설 소방위원회·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 지역 현안과 예산을 쟁겼다. 백산산업특구 고도화, 소방공무원 건강증진 조례, 광역철도 건설 촉구 등 현안 의제에서 실적을 쌓아 "장밋빛 구호보다 작동하는 정책"을 강조한다.

화순은 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공식이 먹히는 대표 지역이다. 2011년 재선거부터 최근 네 차례 군수 선거까지 민주당 후보가 연속 당선되면서, 출마 예정자들의 시선은 자연스레 권리당원 지향으로 쏠린다. 그 여파로 '외제 경쟁이 약해지고, 조직전이 과열된다'는 지적도 반복돼왔다. 이번엔 다를 수 있을까. 인구소멸 대응, 백산·바이오 클러스터의 일자리 확충, 폐광지 재생, 관광·교육 인프라 보강, 농가 소득 구조 개선, 광주·화순 생활권 통합 등 굵직한 과제들이 본선 못지않게 예선의 논점을 규정할 가능성이 크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현직에 전현직 도의원 경쟁 치열

성과 앞세운 김성 군수에 윤명희·곽태수·왕윤채·사순문 도전

장흥군수

현직 김성 군수의 재선 도전이 유력한 장흥군수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현직 의원들과 무소속 주자까지 가세하면서, 벌써부터 다섯 명이 맞붙는 치열한 경쟁 구도로 흐르고 있다.

김성 군수는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으로, 당 핵심 의사결정 라인과 직접 연결돼 있다는 점에서 존재감이 크다. 이는 향후 국비 확보와 대형 프로젝트 유치 경쟁에서 장흥군이 전략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으로 평가된다. 임기 동안 전남소방본부와 대한민국체육인재개발원 유치, 천관산HUG벨트 조성, 전남형 만원주택 도입, 장흥한우 농촌융복합 산업단지 조성 등 굵직한 성과를 냈다. 관광객 200만 명 시대를 열고, 결혼장려금 지급 등 전국 최초의 인구정책을 시행해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킨 점도 강점으로 꼽힌다.

민주당의 윤명희 전남도의원도 출마 의지를 본격화했다. 그는 도당 여성위원장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며 중앙과 지방을 잇는 정책 네트워크를 구축한 인물이다. 특히 해상풍력 특별법 제정, 인구소멸지역 연구인력 요건 완화, 고향사랑기부제 개선 등 굵직한 정책 제안을 국가 차원에서 성사시킨 경험은 장흥군정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산으로 평가된다.

도의회에서는 현직 경제관광문화위원장으로 기획행정위원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핵심 상임위를 두루 거



김성



곽태수



윤명희



사순문

치며 예산과 교육, 정책 기획 전반을 아우르는 경험을 쌓았다. 가족행복정책·여성정책·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에서도 활동하며 복지, 성평등, 대외 교류 등 다층적인 지역 현안 해결에도 힘써왔다.

민주당 내 다른 주자들도 경쟁 대열에 합류했다. 곽태수 전 전남도 의원은 군의회의와 도의회를 두루 거친 풍부한 의정 경험을 앞세워 "민생 중심 행정"을 내세운다. 대덕읍 이장과 세마읍금고 이사장, 민주당 장흥군 연락소장 등을 거치며 지역 기반을 다져왔고, 민주 전남도당 부위원장을 맡아 당내 입지도 탄탄하다.

왕윤채 전 장흥군의회의 의장도 3선 의정 경력과 전반적 의정 경험을 내세워 도전장을 냈다. 청년발전 기본 조례안, 빈집정비 지원 조례안, 고독사 예방 조례안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조례를 주도했고, 행안부 주관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기초의회 최초로 대상을 수상하며 주목을 받았다.

무소속 사순문 전 전남도의회는 중앙부처와 도의회를 아우른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운다. 통일부 장관 보좌관과 중앙부처 공무원으로 정책 실무를 경험했고, 도의원 시절에는 청년·교육·문화·균형발전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이현규 기자

강진원, 군수직 수성 여부 주목

차영수 도의원·오병석 전 차관보 등과 3파전...비전 제시 관건

강진군수

강진군수 선거는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강진원 군수가 사실

상 네 번째 도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차영수 전남도의회와 오병석 전 농림축산식품부 차관보 출신 교수가 맞대결을 준비하면서 3파전 경계가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강진원 군수는 2012년 보궐선거에서 처음 군수 자리에 올라 민선 5·6기를 연이어 이끌었고, 민선 8기에서 다시 복귀해 군정을 맡고 있다. 군정 사무관으로 공직 생활을 시작해 전남도청에서 기획과 정책 부서를 두루 거친 행정 전문가답게, 임기 동안 굵직한 성과를 쌓아온 점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실제 군정 운영에서 그는 인구 증가와 정주 여건 개선, 관광객 유치, 농수축산업 경쟁력 강화, 투자 기반 확보 등 5대 목표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반값 여행' 프로그램을 통한 관광객 확대, 전국 최고 수준의 육아수당 지급, 빈집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이 있다. 이들 정책은 중앙정부로부터 대통령상 3년 연속 수상으로 이어지며 대외적 성과로도 이어졌다. 청자축제 국가축제 지정, 강진산단 분양 성과, 농수축산물 통합 브랜드 운영 등도 지역 균형발전의 동력으로 꼽힌다. 다만, 세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군민들에게 '과도한 장기 집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에 맞서는 차영수 전남도 의원은 풍부한 의정 경험을 무기로 세를 넓히고 있다. 그는 제11대와 12대 전남도의회에서 활동하며 의회운영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 주요 보직을 거치며 '예산과 입법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역 현



강진원



오병석



차영수

안 해결 과정에서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강진-마량 구간 국도 23호선 4차선 확장을 국가 계획에 반영시키는 데 기여했고, 까치내재 터널 사업 역시 도의회 활동을 통해 예산 확보를 이끌어냈다. 의정 활동에서는 아동 돌봄 조례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제도 개선을 주도해 지역 사회의 평가를 받았다. 지난해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런 행보의 결과물이다.

농정 분야 전문가로 꼽히는 오병석 전남대 초빙교수도 가세해 눈길을 끌고 있다. 강진 출신인 그는 제25회 기술고등고시 합격 후 공직에 입문해 농촌정책국장, 국립종자원장, 농림기술기획평가원 초대 원장 등을 역임하며 농업과 농촌 정책 전반을 두루 경험했다. 특히 공직 재직 당시 농촌공간계획 제도도 도입해 난개발을 막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에 지속가능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농식품 분야 최초로 5개년 R&D 계획을 수립하고, 농기계 전동화·자동화 기반을 구축하는 등 정책 기획과 현장 적용을 아우르는 역량을 보여왔다. 그는 이런 경험을 지역 발전 전략과 직무에 농업·농촌 중심자인 강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해남군수

전남 해남군수 선거는 현직인 명현관 군수의 3선 도전 여부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전·현직 정치인들과 각계 인사들의 도전 움직임이 맞물리며 주목 받고 있다.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안정적 군정 운영 능력을 인정받은 현직 프리미엄이 얼마나 유효할지, 또 유권자들이 변화를 택할지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전남도의회 재선 의원과 의장을 거쳐 2018년 해남군수로 당선된 뒤 2022년 단독 출마로 무투표 재선에 성공했다.

민선 8기 군정 목표로 내건 '힘찬 도약, 살맛나는 으뜸 해남'을 기치로 소통·공감 행정, 미래농업, 관광산업, 균형발전, 나눔 복지 등 5대 방점을 제시하며 111개 공약을 추진했다.

명 군수 입정에서는 이런 성과와 함께 굵직한 현안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라도 3선 도전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맞서는 도전자들의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다. 먼저 이길운 해남군 체육회장은 군의원 3선을 거치고 전반적 의장을 맡아 탄탄한 정치적 기반을 다져왔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명현관 군수에게 패했고, 2022년에는 불출마를 선택했지만 여전히 지역 정치권에서 경쟁력 있는 인물로 꼽힌다.

김성주 전 해남군수협 조합장 역시 유력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행정 경험은 부족하지만, 위기 속에서 보여준 경영 능력이



명현관



김병덕



박철한



이길운

가장 큰 무기다. 누적 적자 200억 원대 파산 위기까지 몰렸던 해남군수협을 맡아 4년 연속 흑자로 전환시키며 9년 만에 정상화에 성공했다. 수산물식품안전저장단지 조성하고 냉동보관시설 건립, 전복 군납사업 유치, 수도권 지점 개설 등으로 수협의 체질을 바꿔놓은 인물로 꼽힌다.

서해군 해남군의원은 34년간 공직 생활을 거쳐 지방의회에 입성한 케이스다. 문화관광과장, 북일·황산면장을 지내며 현장을 두루 경험했고, 군의원으로 활동하면서 쌓은 의정 경험까지 더해 행정과 정치의 교집합을 갖춘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김병덕 전 해남군의회의 의장도 출마 가능성이 높은 인사다. 재선 군의원과 의장을 거치며 군정과 지역 현안을 두루 경험했으며, 2022년 도의원 선거에서 공천 탈락을 겪은 뒤 박지원 의원 지역 사무국장을 맡아 정치적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박철한 전 군수의 이름도 일부 지역에서 거론된다. 그는 민선 6기 군수로 재임했지만 인사 문제로 갈등으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 사퇴한 아픈 전력이 있다. 그러나 당시 농어민 지원 확대 등 일부 성과가 재평가되며 '재기 가능성'이 지역 정치권에서 간헐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현규 기자

성과 vs 경험 vs 신인...3자 구도 판세

우승희 군수 재선 의지...군정 두차례 이끈 전동평 재출마

영암군수

전남 영암군수 선거는 '현직 대 전직, 그리고 공직자 출신'의 3자 구도로 압축되고 있다. 재선을 노리는 우승희 군수를 상대로 전동평 전 군수와 최영열 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이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초반부터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승희 군수는 국회의원 보좌관과 전남도의회 의원, 5·18기념재단 이사 등을 거쳐 민선 8기 영암군수에 올랐다. 취임 후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사무총장을 맡으며 대외 활동을 이어왔고, 군정에서는 재정 혁신과 국비 확보에 성과를 내세우고 있다. 정부 교부세 감소 속에서도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

를 확보했고, 매년 반던 보조금 패배티를 해소해 올해 80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아냈다.

그는 최근 '영암 에너지 자선자소 그린시티 100' 구상을 내놓고 대불산단 에너지 자급 인프라 구축, 공공형 VPP(가상발전소) 모델 도입 등 미래 에너지 산업 기반을 다지고 있다.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 월출산 생태탐방원, 농촌협약, 구립 르네상스 사업 등 굵직한 국책사업을 유치했고, 소아청소년과 병원 개원, 청년주택 200호 유치, 무화과 테마파크 조성 등 생활 현안 해결에도 성과를 보였다. 우 군수는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중심으로 군정을 운영하겠다"며 재선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이에 맞서는 전동평 전 군수는 민선 6·7기 동안 군정을 이끌었



우승희



전동평



최영열

던 경험을 무기로 재도전을 선언했다. 그는 민주당 전남도당 부위원장과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전남위원장 등을 맡아 활동하며 정치적 입지를 이어가고 있다. 재임 시절 영암군은 군 재정 확대, 일자리 창출, 투자 유치 등 각종 행정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고, 공약 이행을 최고 등급을 확보하는 등 눈에 띄는 성과를 기록했다. 민속씨름단 창단, 국립종자원 벼 정선시설 유치, 한국트롯트가요센터 건립 등 지역 특화사업도 추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농축산업, 문화관광, 조선, 자동차 산업을 축으로 한 '복지영암'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 공략에 나서고 있다. 전 전

군수는 "군민 삶의 질 개선과 지역경제 회복을 동시에 이끌겠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최영열 전 전남도청 종합민원실장은 풍부한 공직 경험을 내세우고 있다. 전남도청 재직 당시 정부합동평가에서 민원행정 서비스 전국 1위를 달성하며 행정형 행정가로 평가받았다. 국회의원 수석보좌관을 지내며 중앙부처 예산 확보와 정책 교섭 경험을 쌓았고, 민주당 대선 조직에서 후보단장을 맡아 선거 실무도 총괄한 경력도 있다. 현재는 영암군 상생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주력하고 있다. 그는 "현장 행정과 중앙 네트워크를 결합해 군민 중심 군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평가에서는 이번 선거를 현직의 성과, 전직의 경험, 행정가의 도전이 맞서는 구도로 본다. 세 후보 모두 장단점이 뚜렷해 단순히 현직 프리미엄이나 과거 성과만으로 판세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평가 관계자는 "각 후보가 차별화된 비전과 실현 가능한 공약을 내놓고, 군민 생활과 맞닿은 현안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풀어내느냐가 최종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